



삼척 정라항의 차榮福 金花子씨부부는 4년전부터 함께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

어촌 人力難과고에 아내들도 한몫

「맞벌이 고기잡이」다

강원도 동해안 어촌에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양양 고성 삼척 등 영동지방 동해안일대에는 254t짜리 소형선에서 함께 승선해 고기잡이를 하는 부부어부는 2백50여 쌍에 이른다. 양양과 남해의 경우 전체 83가구 중 46%인 38가구가 부부어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어촌에 힘들고 위험한 고기잡이를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선원수가 허락이 어려워져 어부인 남편을 따라 아내들도 자

발적으로 고기잡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삼척시정라항에 사는 차榮福씨(41)와 부인 金花子

를 듣고 작업복과 어구를 챙겨 5백여m 떨어진 정라항으로 향한다. 새벽녘이지만 다른 어부 면서 가자미어장을 찾아

시 2천~2천5백개를 모 두 바닷속에 던지고 풍어를 본다. 이들이 부부어부로 나선 것은 지난 88년 말부터. 68년 결혼 후 부인 金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남편의 어구 손질을 뒷바라지를 해왔으나 88년 12월 남편이 2천여만원(당시 7백70만원포함)으로 통틀배인 88형영호(4.9t)를 구입하면서 함께 배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金씨는 처음 한

주도통발, 잡어자망어업을 하는 이들 부부어부의 가구당 연가평균소득은 월 20일 작업에 하루 7만원 정도로 1천2백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일반 어가의 1천2백여만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1천1백35만원보다 높은 편이다. 삼척시 수산관계자는 부부어부들은 안전조치를 취해 낚시가 나쁠 때는 출어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단 한건의 해난사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東海岸 한마을 절반이 부부함께 出漁 수입 짝짝하고 「들만의 時間」 좋아요

씨(36)도 업척스런 부부어부로 꼽힌다. 이들이 잘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새벽 3시. 자동음향초기에서 흘러나오는 일기예보 서서히 항구를 빠져나간 부인 金씨는 미끼를 켄뒤 1년도 안된 89년 7월 남

편 찰씨가 배를 선착장에 안착시키려다 스킨루에 오를 줄 다리가 말려들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불운을 겪었다. 결국 차씨가 불의의 몸으로 1년 6개월만에 퇴원하기까지 부인 金씨는 혼자 배를 띄우며 업척스럽게 고기잡이를 계속했다.